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쉼번재>

제50회 백고좌 기념 열린강좌

- 주제 : 불교의 미래
- 일시 : 불기2551(2007)년 7월 21일(토) 14시30분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박광서 교수 약력]

- 1974.8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1981.5 미국 브라운대학 물리학 박사
- 1983.9-현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 1991.10-2003.12 사)우리는선우/이사장
- 1999.3-2006.12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 2000.3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집행위원장
- 2007.1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7월 사찰문화 답사

용문사 사나사 세미원

- 일 시 : 2007년 7월 15일(일)
- 출발지 : 7월 15일 오전 7시30분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7월 초



필리핀 문화답사

경기불교문화원장/진철희



필리핀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유일한 카톨릭 국가 그리고 빈곤과 혼란의 나라라고 가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7109여개의 섬으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섬나라답게 7109여개의 보물을 간직한 미지의 세계로 기억하고 있던 나라이다. 그러던 것이 경불원의 영어반원들과 함께 필리핀문화답사를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묘한 인연은 이런 때 하는 말인가보다.



로마 카톨릭 신자가 80%이상을 차지하는 필리핀은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임을 감안하면 필리핀인들의 기독교 신앙심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 종교가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으로 나뉘지는 것도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심이 다른 대륙보다 아시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이 역사의 표면에 등장한 것은 1521년 메르나단도 마젤란 일행이 현재의 세부 시티에 상륙하면서 시작된다. 스페인은 그 때까지 “발랑가이”라는 수많은 친족 집단이 흩어져 살고 있던 칠천여개의 섬들을 필리핀이라는 하나의 섬으로 묶었다. 약 300년에 달하는 스페인 통치는 이 나라에 기독교를 심어주고 음식문화와 언어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

향을 주었으며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지프니는 필리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군이 사용하던 지프를 합승으로 개조하여 현란한 도색과 커다란 음악소리는 인도에서 거리를 질주하는 트럭의 축소판이라 생각된다.

필리핀의 문화답사를 하면서 인상적인 것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영어 사용 국가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필리핀 전통언어인 타갈로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언어는 원래 루손 섬의 마닐라 주변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매스컴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보급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국적으로부터 식민지 국가로 지내면서 문화의 근간인 언어만은 필리핀 나라의 자존심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필리핀의 민족은 말레이계가 96%나 되어 마치 단일민족처럼 보이지만 언어 면에서는 말레이계 안에서도 민족별로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

100여 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은 지역과 섬에 따라 문화나 민속이 매우 다르므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필리핀의 매력이다.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16)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역시 행복하고자하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 법구경 131 -

He who seeks his own happiness by oppressing others who also desire to have happiness will not find happiness in his next existence

- DhammaPada 131 -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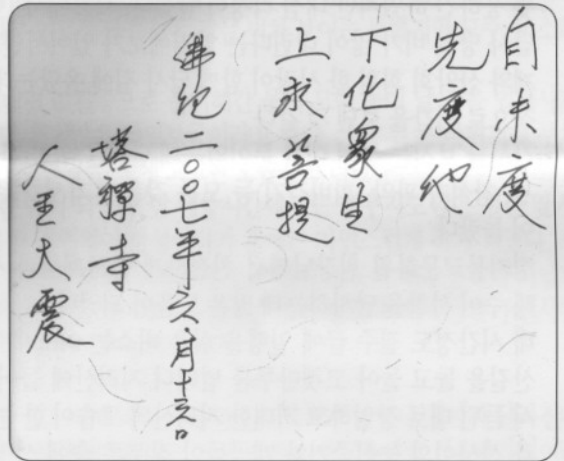
불교의 현대화와 불자의 자세



탐선사주지/대진스님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는 1600년이란 긴 세월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현대화해야 발전을 하는 것이지 옛날식으로 참선, 염불, 경전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스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교가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중화해야 하고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에 강국들은 자기의 종교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갯목불교라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갯목이란 기름을 빼낸 찌꺼기 인지라 진미가 없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변형해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원리는 그대로 두되 현대에 맞게 응용을 해야 합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을 알기 쉽게 한글로 만들고 보급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유마경에 현대와 직통으로 맞아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리불이 풀숲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좌선이 아닙니다. 진짜 참선이란 것은 불법 속에 있으면서도 범부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번민 속에서도 열반에 드는 좌선을 해야 하고 멸진정에 있으면서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선이 좌선이다. 마음속, 마음 밖으로 언제나 불경을 떠나지 않고 꿈속에서도 37조도품을 항상 할 수 있어야 성불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유발스님이나 법사들을 무시하고, 스님과 재가불자를 구분하고 갈라지는데, 부처님이 불자요 불자가 스님이라는 사고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승복을 입어야만, 머리를 깎아야만 스님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야만 합니다.

현대는 종교의 다원화시대입니다.

불교가 발전을 못하는 것은 우리 불교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찰을 지키기 보다는 대 사찰이나 큰스님 계신 곳으로 집중해서 몰려다닙니다. 그러므로 시골 산속사찰이 도산.

폐쇄되는 위기를 맞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절을 살리는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파를 떠난 사찰사랑이 부처님사랑 아니겠습니까?

풀뿌리 사찰 살리기 참여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불교는 우리 곁에서 영영 떠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변혁은 불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변용을 하는 것은 스님이나 불자나 같은 책임이니 불교의 X파일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X파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불교교육에 사회교육도 함께 결들여야 하고 환경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불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불경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종교의 경전도 공부하고 타종교에서는 어떤 의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연구하여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경기 불교

현대 트랜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장마비와 함께 한 사찰답사

사찰답사반원/김용환

그동안 여행이나 산행을 통해서 사찰을 가끔씩 둘러볼 기회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불교관련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찰답사는 처음 접해보는 것이었고 불자가 아닌 나로서는 사실 조금 어색한 기분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매월 한 번씩 산악회를 통해서 원거리 산행을 하던 중에 지리산 천왕봉 등산과 사찰답사라는 아내의 제안에 호기심 반으로 선 뜻 응하긴 하였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다. 사찰에서 1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랄까.....

답사 당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인지 평소의 절반정도의 인원이 탑승했다. 아내의 제안에 강화도에 사는 처제와 산악회 회원 한 사람이 함께 답사 길에 올랐는데 이른 새벽출발을 위해 잠을 설치서인지 이동 중에 휴게소 빼놓고는 거의 잠으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간사를 보시는 분이 여자 분이었는데 답사를 위한 간식, 안내자료, 명찰, 참석자 파악, 회비건기 등 모든 것을 혼자서 거뜬히 수행하고 있어 놀랐다.

경기불교문화원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답사계획과 사찰정보를 설명해 주어 사찰을 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네 시간정도 질주 끝에 일행을 실은 버스는 어느새 전라남도 비탈진 산길을 돌고 돌아 고갯마루를 넘더니 지리산에 들어서고 있었다. 역시 듣던 대로 장엄하고 거대한 지리산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산과 산사이의 능선줄기와 계곡들이 짙푸른 숲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이 잘 어우러진 한없이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의 모습이었다.



먼저 도착한 곳은 벽송사라는 사찰이었는데 사찰 뒤 언덕위에 우뚝 솟은 노송 두 그루와 대나무 밭, 사찰 초입에 있는 목장승,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스님이 우리일행을 위하여 시간을 내서 잠깐이지만 법문을 해 주셨다.

벽송사에서 걸어서 10여분정도 거리에 서암정사라는 곳에 들렀는데 벽송사 서쪽에 있는 암자라는 뜻 같았다.

이곳은 스님 몇 분이 10년을 넘게 정성을 모아 화강암으로 된 바위에 굴을 파고 그 안에 부처님, 지장보살, 여러 신 등을 조각했는데 정교하고 섬세한 불상들로 가득 차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바위에서 배어나오는 색감과 설치된 조명이 배합되어 내게는 왠지 더 자비로운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여 졌다. 고맙게도 이곳을 관리하는 보살님이 자세하게 조각에 관한 안내를 해주셨다. 굴 내부의 환기를 위하여 천정 쪽에 바깥으로 통하는 창문도 있었다. 굴 바깥쪽에도 입구부터 암벽마다 사천왕상을 비롯한 여러 형상의 조각들이 천연암반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신기한 것은 이곳 산속에 용왕님을 형상화한 조각도 보였다. 용왕님을 이곳에서 조각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어떻든 미술에 문외한인 내게는 모두 것이 예술작품 그대로였다.

이 작품들이 탄생하기까지 쏟아 부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실로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례인줄 알면서도 절하는 일행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후래쉬를 터트리며 몇 컷의 사진을 찍어댔다. 많이 미안했다.

이곳에서 점심을 비빔밥으로 공양했는데 주변경관이 좋아서인지 참으로 꿀맛이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천왕봉 바로 아래 중턱에 자리 잡은 법계사였다. 두 시간을 넘게 달려 일행은 법계사 진입로에도 착했는데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 우의를 입고 등산을 하여야했다. 더운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로는 넓지도 않고 가파른 길도 많지 않아 산행하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부슬비에 흠뻑 젖은 나뭇잎사이로 안개인지 구름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희뿌연 운무에 휘감긴 산속을 오르고 또 올랐다.

6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2,004,66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양재흥, 장명순, 윤영무, 김용필, 염규용, 이기원, 조권형, 윤광숙,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진주범, 정무근, 이상범, 강재수, 김기현, 구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정효진, 이남덕, 정해영,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양희선, 박진배, 조정자, 김경수, 이병일, 조병희, 배민한, 양정례, 심화식, 진기홍, 조남중, 정현숙, 차용희, 이상남, 정경화, 서의호, 박영희,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어윤식, 정재안, 신윤식, 박흥근, 안병선, 박상우, 이대병, 장선희, 박정미, 장상덕, 안창호, 이경옥, 주인수, 이경원, 황주호, 박종삼, 이수교, 김혜자, 조명선, 신연자, 배정희, 박정자, 공석남, 서상열, 김재숙, 대진스님



사찰답사

장마비와 함께 한 사찰답사

사찰답사반원/김용환

우의 속으로 땀이 흠뻑 젖었지만 산속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냄새에 동화되어 큰 숨을 몰아 몇 번이고 토해냈다. 비가 약간 내리지만 흥미롭고 마음 뿌듯한 산행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맹목적인 산행이 아닌 국내최고의 위치에 있고 역사와 보물을 한 몸에 지닌 법계사를 답사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는 난생처음 겪게 되는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일, 셋째로 국내에 두 번째로 높은 산을 정복한다는 세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아내와 처제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쁨이 배가될 수밖에.....

나는 평소 산행을 하는 편이어서 선두에서 서서 어렵지 않게 산행을 했는데 일부 연로하신 분들은 조금 벅차 보이는 듯했지만 모두 잘 소화해냈다.



비가 내리지만 땀방울은 연신 흘러내렸고 갈증으로 준비해간 물이 모두 동이 날 즈음 법계사가 눈앞에 들어왔다. 자그마한 절이지만 흔치않은 적멸보궁이라고 했다. 사찰 뒤 큰 바위위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다층석탑이 뿌연 운무 속에 고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이 깔리더니 산속은 금방 적막한 밤이 되었다. 밤 예불시간에 나는 배우지도 않은 절을 묘사할 따를 수 십 번 한 것 같다. 처음엔 점연쩍어 망설이다가 후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불경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는 부처님께 절을 하며 잘못된 뉘우침과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와,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정성을 모아 빌었다.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또렷이 떠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의 범문말씀 중에 내가 가슴에 깊이 와 닿아 새기고 온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사람이 자기마음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 주변의 인연들의 화답이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과 둘째로는, 불교용어로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베푸는 마음을 지녀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과 셋째는 불교용어로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살면서 늘 기억하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도 괜찮은 말씀이다.

법계사에서 밤 예불이 있었음에도 새벽 4시부터 여지없이 목탁소리가 생생히 귓가에 들려왔다. 원장님을 포함한 몇몇 불심이 깊으신 거사님들은 살며시 새벽예불참여를 위해서 나가셨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누워서 불경 읽는 소리와 목탁소리에 취해 몇 시간을 보냈다. 바깥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도 크게 들려왔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천왕봉등산이 가능할 텐데 어려울 것 같았다.

아침공양 후 역시 원장님의 결정이 떨어졌다. 천왕봉 등산은 강한 비바람으로 위험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남은 시간을 다른 스케줄로 변경하여 진행한다는.....

우리 일행이 하산 길에 접어들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비가 개이기 시작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천왕봉 등산이었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뜻으로 보고 우리는 하산하기로 했다. 간밤에 내린 비로 계곡의 물이 많이 불어 있어 군데군데 무명의 폭포가 형성되어 우리를 반겼다. 시간이 남아 대체된 방문 장소는 보리원이라는 사찰이었는데 그곳은 원장님의 지인인 어느 보살님이 다니는 사찰이라 했고 마침 그분이 그곳에 있어 방문해서 점심공양을 하기로 했다.

점심공양에 앞서 산행을 하며 뭉친 근육을 풀기위해 평소 요가를 하시는 보살님 두 분의 지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자세로 몸을 풀었다. 즐거운 한 때였다. 점심공양은 그야말로 미안할 정도로 진수성찬이었다.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비구니 사원으로 유명한 대원사였다.

시원하고 넓은 계곡 속에 우뚝우뚝 솟은 노송들과 진입관문이 우리 일행을 반겼다. 사찰의 분위기는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리되어있고 비구니의 잔잔한 불경이 흐르고 화단을 포함한 샘물까지 구석구석 잘 조화된 사찰이었다.

조용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수료식 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내원사를 방문하고 귀경길에 올랐는데 버스에서 저마다 느낀 소감도 발표했다.

이번 사찰 답사를 통해서 경기불교문화원 주관행사라는 이점으로 사찰 답사 때마다 스님들의 자세한 안내와 사찰에 얹힌 역사 등을 생생하게 듣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다만, 6.25전쟁이나 왜적의 침략으로 소실된 국보급의 훌륭한 우리의 문화재가 상처로 남아 있음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삼보사찰답사를 다녀오고 싶다.

끝으로 1박2일 동안 수고해 주시고 좋은 답사기회를 마련해주신 경기불교문화원 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웃음과 해학의 상징 나한

조계종 포교사/본원 이사/권중서



무더운 여름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계곡, 강 등으로 피서를 떠난다. 휴가에서는 가족들이 주로 놀이 문화에 시간을 할애하며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놀이에 몰입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떠난 휴가이지만 정작 부모, 자식과의 대화는 끊어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도심에서처럼 각자의 놀이 문화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은 인파가 밀리는 시끄러운 곳 보다는 조용히 가족과 숲속을 걸으며 자아를 관찰하고 자식과 대화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찰을 찾아보자.

일반적으로 사찰가면 나한전이나, 영산전, 대웅전 포벽에 그려진 아라한을 만날 수 있다.

나한은 인도말 아라한(Arhan)을 줄인 말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또 다시 태어남을 격지 않는 분을 말한다. 가섭, 아난 등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빈두로파라타 등 16명의 아라한,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 기록된 500명의 아라한과 부처님 당시 부처님 설법을 듣고 항상 부처님을 따르는 1250명의 제자 등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깨달음을 이룬 이러한 분을 아라한이라 한다.



이들은 모든 진리를 터득하신 분으로 진리에 상응한다하여 응진(應眞), 세상의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공(應供)이라 하여 사찰에서는 금당 후불화에 10대 제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등의 전각에 불보살님과 함께 16분이나 500분의 조형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사찰 대웅전의 포벽이나 불상 뒤의 탱화라 부르는 후불화의 상단, 나한전 등에 모셔진 아라한의 모습 또한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근엄한 표정과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을 보고 웃거나, 눈을 부릅뜨거나, 용을 잡고 있거나, 중생의 공양을 받거나, 발아래 사자를 두거나, 또는 학을 안고 있거나, 등을 굽거나, 책을 읽거나 등등 천차만별의 모습과 표정이다.

해 맑고 장난기 어린 표정과 격을 깨는 해학적인 모습에서 일상의 속박 속에 찌들고 여유 없는 중생들의 삶에 한줄기 시원한 감로의 비를 뿌리는 듯 걸림 없고 자유자재한 아라한의 모습에서 자유분방하고 굴레를 벗어난 평등과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느껴볼 수 있다.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불상 뒤 후불화에는 장엄된 극락의 세계를 아미타부처님이 설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설법에 화불, 보살, 범천은 정면을 향하여 엄숙히 자리하고 있으나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설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며 장난치는 아동들처럼 장난끼 섞인 표정으로 손에든 그림을 옆 아라한에게 자랑하니 뒤편의 아라한이 보려는 듯 머리를 두드리고 장난을 하는 모습에서 근엄한 아미타 회상의 불화에서도 굴레와 속박을 벗어난 아라한의 파격적인 여유로움에 세파에 웃음을 잃어버린 중생들에게 웃음과 여유로움을 전해주는 듯하다. 경이 불교

고품격 귀금속 전문점 - 노블젼스

대표 조 명 선

TEL. 031)212-4322 HP 011-9965-4322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200-22 한국2차A 상가 맞은편〉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사랑방

경기불교 문화원 소식

경기불교소식

● 백인에게들는다(마흔아홉번째)

불기2551(2007)년 6월 16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대진스님의 “현대불자와 불교의 자세”를 주제로 법회가 있었습니다.

● 6월 사찰답사

(서암정사, 벽송사, 법계사, 대원사, 내원사)

6월 사찰답사는 1박2일로 지리산 서암정사, 벽송사, 법계사, 대원사, 내원사에 다녀왔습니다.



● 필리핀 문화답사

불기 2551년(2007)6월12일~16일 본원 영어회화반원을 주축으로 필리핀 문화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선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달마에서 혜능까지)

- 일 시 : 2007년 8월 5일 ~ 8월 12일 (7박8일)
- 일 정 : 달마-혜가-승찬-도산-흥인-혜능대사-정주-낙양-무한-천주산-황매현-광주-소관-광주-인천
- 비 용 : 1,350,000원
- 인 원 : 20인 이내(선착순)
- 마 감 : 7월 17일까지

선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순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백중(우란분절)맞이 천도재 안내]

저희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백중을 맞이하여 상제 선망부모와 이를 잃은 어린 님과 구천에 떠도는 유주무주 고훈 중음신과 업장 중생들의 고통을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1년 8월27일(음7월15일)오전10시30분
- 동참금 : 위패당 1만원

● 중국국보전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진(서기전 221~206)을 이어서 통일 제국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서기전 206년~서기 220년)과 국제성을 자랑하던 당(서기 618~907)의 유물을 중심으로, 1200년 중국 고대의 찬란한 문화의 빛을 감상하는 기회다



- 기간 : 2007년5월23일(수)~2007년8월26일(일)
- 매주 월요일 휴관
-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광화문)
- 관람시간 : 오전 10시~ 오후 8시 (입장마감 7시)
- 문의전화 : (02)3676-7845

● 세계 7대 불가사의 선정

新 세계7대불가사의 발표

민간단체인 '세계 신(新) 7대 불가사의 재단'은 7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경기장에서 6년여 동안 전세계 1억여 명이 인터넷과 전화로 투표한 결과를 종합해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1. 중국 만리장성
2. 페루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3. 브라질 거대 예수상
4. 멕시코 치첸 이차의 마야 유적지
5. 로마 콜로세움
6. 인도 타지마할
7.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



고대 7대 불가사의

1. 이집트의 쿠푸왕의 피라미드
2. 바빌론의 공중정원
3.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4.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신전
5.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6. 로도스 항구의 크로이소스상
7.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오늘날에는 이 중 이집트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만 남아있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함스브루크 왕가별렉션)

전시기간 : 2007년 6월 26일~2007년 9월 30일

장 소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전관

작 품 : 16~18세기 초 바로크회화 걸작 64점

작 가 :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티치아노, 틴토레토, 반다이코 등 16~17세기 서양미술사의 대표적인 작가 총 56명



문 약 : (02)2022-0600

- 베스트 불서 10권 -

1.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 최만희/운주사
2. 연젠가 이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월호/마음의숲
3.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형견/벗다의 마을
4. 은둔/조연현/오래된 미래
5.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과경/불광
6. 바랑 속 이야기/동학사편집실/운주사
7. 인연법과 마음공부/해국/효림
8. 스님,마음이 불편해요/법륜/정토
9. 하루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기적/김재성/아름미디어
- 10.구법/정운/솔바람

2007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지묵스님	20명	8주 80,000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웰빙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수시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박광서교수	100명	무료	제50회 백고좌기념 열린강좌	7월 21일(토) 오후 3시	매월
	사찰환경 답사반	권중서	40명	30,000원	용문사, 사나사, 세미원	7월 15일(일) 오전 7시 30분	매월
산행상담	가정상담 · 불교교리 ☎ 031-251-1083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